

# 자율쿼터제 폐기 등 사육수수 감축의지 부족 아쉬움으로…

노 금 호 축산신문 기자



올해 양계업계를 뒤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2월에 새롭게 양계산업 전진을 위한 '이준동 호'가 양계협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 첫 항해를 시작했다. 산란계의 텃밭이었던 협회 내에서 육계를 사육하는 젊은 패기로 똘똘 뭉쳐있는 이준동 회장의 당선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포부로 올해 양계협회가 시작이 됐다.

2008년 양계산업의 가장 큰 이슈를 꼽는다면 고병원성 AI를 꼽지 않을까 싶다. 이는 나뿐이 아닌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이슈이기도 했다. 또한 육계 계열업체와 농가 간 계약간의 문제와 원종계 문제 등 풀리지 않는 실태를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져 가는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 AI 계속적인 악순환이 이뤄져야만 하나?

우리 방역당국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말까지 AI가 발병하지 않음으로써 방역 성공을 자축했었다. 하지만 자축에 찬물을 뒤집어쓰기라도 하듯 4월 반갑지 않은 AI 방문으로 정부가 내놓은 살처분 보상비 등 경제적 피해와 농가들이 말 못할 경제적·정신적인 피해를 남겼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농장 앞마당에 백색의 석회가루를 뿌리고 농장 앞마당에 담배꽁초 없이 철저한 방역을 지켜 나간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양계 농가를 찾아가 보면 농장 앞 소독장비를 갖추지 않은 곳이나 대다수의 농장이 방역에 확고한 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방역의식은 농가뿐이 아닌 정부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가피해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살처분 보상비에 대한 가격 중 일부를 농가에 예방교육과 방역장비의 지원으로 나라 살림을 더욱 알차



게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검역원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수요에 대한 공급이 부지부진 하기에 더 높은 지원책이 있어 홍보를 농가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인다.

### 과잉생산은 제살 깎아 먹는 식이 될 수도

대한양계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란계 사육수수는 6천여만수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란생산에 참여하는 산란계 사육수수는 4천6백여만수로써 하루 3천270여만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1인당 계란 소비량 200여개로써 하루 2천700여만개 계란이면 충분히 소화가 되나 현재 20% 이상이 증가될 뿐 아니라 소비감소와 사육수수 증가로써 계란 가격하락 등으로 채란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양계산업 중 우리나라가 필요한 산란계 사육수자는 5천만수가 적정 수자로 보고 있다. 현재 사육수수의 감축이 시작점에서 계획뿐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업계의 바람이 내포되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계열사 중심의 된 육계산업은 서로 제살 깎아 먹고 있는 듯이 서로에 대한 D/C폭을 높게 잡아 가격하락의 악순환을 이어 가

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없는 중소계열사들의 도산과 합병이 됨으로써 더욱 힘들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육용원종계도 심각한 문제에 놓여있다. 육용원종계 08년 상반기 수입실적은 7월 현재 6만4천여수가 수입됐다. 앞으로 들어올 수입물량으로 8만2천여수가 잡혀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육용종계 4사들은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자율쿼터제 폐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6만수의 육용원종계 수입량을 12만수로 줄이자는데 합의점을 찾는 듯 했다. 하지만 9월 이후 업체들은 대표자회의만을 남겨놓은 상황에 아무런 반응들을 보이지 않고 무일무이하게 넘어가는 것이 육용종계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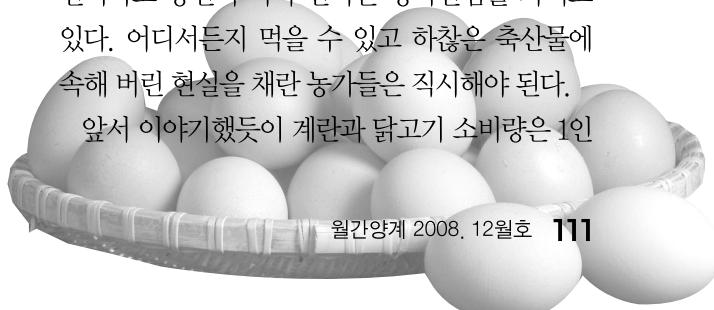
산란종계 역시 종계감축과 산란쿼터제 부활을 외쳤지만 사실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채란업계는 자율입식 중단을 선언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어서 생산부분 수급조절은 현재 위기상황에서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문제는 늘어날 대로 늘어난 채란업계의 생산능력을 높릴 수 없다는 농가들의 현실 상황과 계속 물량을 늘려 성장을 이어가야 하는 대형 계육회사들의 상황이 물량제한을 용납하지 않는데 있다.

### 계란·닭고기는 싼 가격에 먹어야 된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계란과 닭고기는 싸게만 인식하고 당연히 싸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고 하찮은 축산물에 속해 버린 현실을 채란 농가들은 직시해야 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계란과 닭고기 소비량은 1인



당 닭 9kg, 계란 200여개로 일본의 200~300개의 소비량과 중국의 12kg 이상의 닭 소비량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덧붙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의 하락과 덤펑 판매, 계란 D/C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할인 폭을 늘리며 농가와 산업을 죽여가고 있다.

계란과 닭고기의 경쟁력과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보인다. 이에 양계인들도 올해부터 시행됐던 HACCP 인증인 친환경 축산물과 업계에서 이를 수 있는 계란 먹을거리를 가공해 소비자의 선택을 높이 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자조금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본다.

### 자조금 시행으로 양계 발전성 커져

현재 한우나 양돈, 낙농의 경우 자조금 시행으로 우리나라 돼지, 한우, 젖소의 소비홍보로 많은 농가들이 더 많은 이익과 함께 소비자들에게도 우리의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었다.

양계분야도 수년째 옥신각신했던 채란과 육계 자조금을 올 12월부터 발판을 만들고 자조금 항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현재 채란의 경우 거출 기관인 도계장의 거출이 확정됨으로 인해 대의원 선출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발족을 한 상태이다. 육계도 농가들의 결의로 사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어 양계도 소비 홍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자조금 시행으로 우리가 소비홍보 하고자 하는 닭고기와 계란에 대해 안전하고 믿을 만한 우리 닭고기를 광고를 통해 우리 것을 강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 FTA 어디까지 다가오고 있나

FTA · DDA 등 앞으로 우리끼리 싸울 문제가 아닌 세계 각국과 싸워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세계최대 닭 사육국은 중국, 미국, EU 순으로 우리나라에 모두 FTA(자유무역협정) 성사만을 바라고 있는 곳들이다. 또한 소비량도 미국 46kg, 캐나다 29kg, 중국 12kg 등이며 모두들 주요 수출국이다. 이러한 FTA라는 거대한 빙하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가, 업체들은 모두들 신중한 대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업분야의 신중성을 기해 농가들의 피해가 없어야 될 것이며, 농가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맛있는 고기를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내놓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 희망이 있는 2009년

08년도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 해였던 것 같다. AI, 계열사와 농가들, 원종계 수입쿼터제 등 항상 어려움을 밀하는 1차 산업 중의 양계산업이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희망의 불씨를 가지고 자조금이 열리는 시점에서 양계의 발전이 더 높게 평가되는 해일 것이다 바라보고 있다.

내년도에는 계란 · 닭고기의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많이 알려 다른 축종보다 소비홍보가 많이 되어 소비자들이 제 값을 주고 찾아 먹을 수 있는 2009년을 기약해 본다. 또한 닭고기 계란 특성상 신선도를 유지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홍보로 FTA도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해로 준비해야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양계**